

담양군,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추진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8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90% 지원

담양군이 다음달 18일까지 신체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져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움이 더욱 필요한 시기로,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과 국

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이다.

보급 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과 지체장애 유형, 청각·언어장애 유형 등 116개 제품이다.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7월 16일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80%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9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월 18일까지이며 접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http://www.at4u.or.kr>)이나 우편 또는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자치행정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또는 군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박종영 기자

곡성군, 치매환자 방문형 1:1 돌봄 제공

곡성군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대상 가가호호 쉼터 운영



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중단됐던 치매 환자 쉼터 운영을 1:1 방문형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곡성군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활동에 제한이 생기자 지난해 1월부터 쉼터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고, 곡성군은 지난 4월부터 1:1 가가호호 쉼터를 운영하게 됐다.

가가호호 쉼터는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은 인지활동형 워크북, 공예·미술치료, 치매 예방체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것에서부터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까지 일상생활을 지원하기도 한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돌봄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치매상담은 치매상담플랫폼(1899-9988) 또는 곡성군치매안심센터(061-360-8994, 8992)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양혜영 기자

무안군, 건강 더하기 힐링 가득 재활 프로그램

기초 건강검사 및 상담·재활운동·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무안군은 4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9주동안 지적 장애인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 유관기관 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종합 복지관과 무안자원원을 연계해 주 1회 운영하며, 기초 건강검사 및 상담, 재활운동,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군은 장애 유형별·상태별 맞춤형 운동과 보행훈련, 소도구를 활용한 전신자극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양 실습과 뉴 스포츠를 통한 응용놀이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는 장애인의 영양 불균형 개선과 재활놀이 운동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



상을 위한 것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재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한부모가족에게 농산물 꾸러미 전달

내일까지 가정당 5만5천원 상당의 위문품 전달

영암군은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의 맞아 10일 부터 14일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90세대에 가정당 5만5천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한다.

이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전달하는 위문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

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꾸러미를 구성하였다.

영암군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매월 생활지원금을 비롯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및

청년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위문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농산물 꾸러미 전달로 지역 농가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영암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진읍, 홀몸어르신 사랑의 물품 전달

강진읍은 지난 6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김영일 강진읍장과 각 마을담당 직원들은 이날 독거노인 세대에 직접 방문해 강진읍 영파리 추대영 농가에서 제공한 배즙(30가정)과 강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후원한 강진사랑상품권 5만원(10가정)을 전달하고, 안부 확인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후원 대상자는 자녀들은 있으나 어렵고 힘들게 사시면서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

홀몸어르신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워지고 돌봄서비스도 축소되어 우울감·피로감 증가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분을 선정했다.

후원물품을 전달받은 김 모 어르신은 “직접 찾아와 안부도 묻고 건강도 챙겨주어 외로움도 해소되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